

야외활동시-진드기 감염병 예방관리

- 최근 국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**SFTS**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, 안전보건공단에서는 ‘작은소피참진드기’의 활동시기 (4~11월) 에 야산이나 들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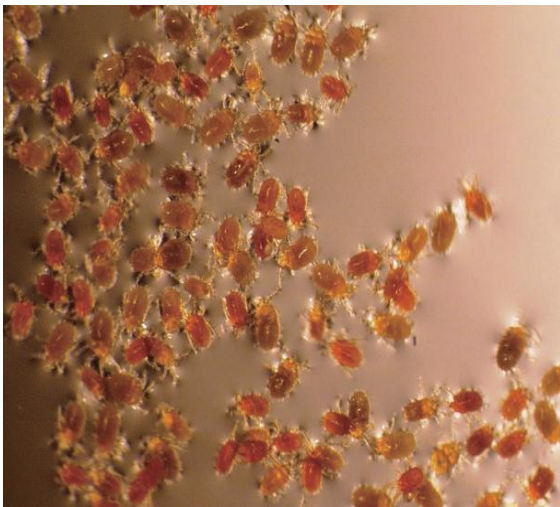
1.쯔쯔가무시증 이란?

- 쯔쯔가무시증은 연중발생하나, 주로 9 월~11월에 감염되는 대표적인가을철 발열성 질환입니다
- 쯔쯔가무시균이 풀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에 있다가 작업하는 사람을 물 때 몸 속으로 침입해 질병을 일으킵니다

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

- 산림, 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, 배수로 공사 근로자 등
- 농업, 임업 근로자 등 - 조경 및 제초작업자 등

쯔쯔가무시O.tsutsugamus의 매개체



털 진드기 유충



풀숲 속 들쥐

2.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이란?

- 최근 국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**SFTS**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, 안전보건공단에서는 ‘작은소피참진드기’의 활동시기 (4~11월) 에 야산이나 들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
- ‘작은소피참진드기’에 물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요 증상은 발열, 소화기 증상이며 중증화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

주요 매개체 : 작은소피참진드기



비흡혈 상태



흡혈 상태

3. 쯤쯤가무시증 &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증상은?

쯤쯤가무시증

- 발열, 심한 두통, 오한(감기와 유사)
- 가피(피부 딱지), 림프절 종대
- 감염 후 몸통·사지에 반점상 발진이 나타났다가 1-2주일 후 소실됨
- 소화기, 호흡기,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

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

- 원인불명의 발열 (38°C 이상)
- 위장관계 증상: 오심·구토, 설사, 식욕부진 등
- 신경학적 증상: 피로감, 근육통, 어눌한 말·경련·의식저하 등
- 출혈증상: 혈뇨, 혈변 등

4.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?

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근로자가 들판이나 산의 풀숲등에서 작업 (이하 '야외작업') 시 반드시 예방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, 임업 종사 근로자 또는 장년근로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

1)야외작업전

- 긴소매, 긴 바지,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(안전화)를 착용하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합니다
-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양말에 바지를 넣어 착용합니다
- 진드기 기피제를 작업복과 토시에 뿌립니다

2)야외작업중

- 풀밭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않습니다
- 휴식이나 음식을 먹을 때는 돛자리를 사용합니다
-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

3)야외작업후 - *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

- 작업이 끝나면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
- 작업복을 털고, 반드시 세탁합니다